

10/03

2021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에게 꼭 회복 되어야 할 것

말씀 본문 : 뱀전 1:14~16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1부 중보기도 : 목회1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에스더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중보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청년부팀 (2:00pm~3:30pm)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5]

- 1)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거룩하고 빛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옵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 2)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로 얼룩지고 무너진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금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사 정결함을 회복케 하시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3)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되고 힘을 얻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4) 매주 예비하신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예배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큰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속히 교회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 5) 모든 중보자들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빛으로 무장시키셔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 앞드리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 2 & 3부: 김대규목사)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찌어다” [사 30:4]

- 1)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2) 찬양팀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찬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 3) 마음의 근심과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참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창석목사, 김현철목사, 전성호목사)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3. 대표 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한상혁장로, 김영록장로, 임명수장로)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회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성령께서 도우사, 하늘보좌를 흔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찌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 99:3]

1.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한 제단 위에 성령의 불과 은사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사, 강단을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2. “**우리에게 꼭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연합했던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 성령충만, 말씀충만, 기도충만, 찬양충만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3.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여 드리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함으로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말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 한 사람으로 구원 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시고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4.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품고 이 시대와 교회들을 위해 불타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연약한 무릎을 드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려주시도록 부르짖으며 중보하게 하옵소서.
5.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일천번제 새벽기도 (1/13/2024 까지) & 100 일 기도(10/19/2021)
 - 그레이스 인카운터 (9/2~10/28) & 성도 양육 과정
 - 추계 부흥 성회(10/7-10/10)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2)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 문을 열고 겸손히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 3) 말씀을 통해 내면의 죄성을 깨달아 묵은 땅이 기경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4)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생수가 흘러 넘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 5)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심령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결단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1)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심령과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2)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찢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51:7) 다윗의 고백처럼, 죄로 물든 마음을 정결케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 3)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섬기고 거룩함으로 주의 나라를 견고케 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4)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서 위로, 치유, 소망, 용기와 자유를 전달하는 빛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제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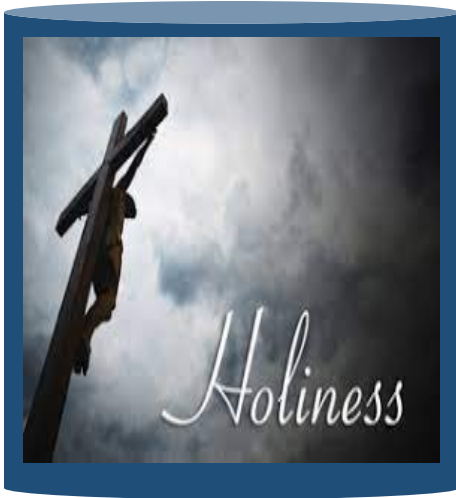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찌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찌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찌어다” [대상16:29]

- 1) 만물의 주인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 2)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 3) 기업마다 복을 받고 청지기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 4)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 5)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이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1.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시고 **거룩함(레11:45)과 존귀함(잠22:1)과 정직함(잠12:22)이 생활화** 되게 하옵소서.
2. 주일과 금요 성령집회 말씀, 일천번제 새벽기도, 백일 기도, 큐티, 말씀통독, 성도 양육 과정을 통해, 매일 매일 능력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 1)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과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 2)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역사와 사회와 교회와 문화 속에 파워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3) 자녀들을 TV,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 약물 등 수 많은 악한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 4)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게 하옵시며 모든 면에서 먼저 학생들 앞에 본을 보이는 예수님 닮은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 5) 장성한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은혜로 이 시대를 섬기면서 민족과 열방에 복음의 감동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 6) Jesus Light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 7) AWANA 프로그램(1학년~5학년)을 축복해 주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2:24]

- 1) 환우와 그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 2) 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위로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 3)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 4)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질병, 특별히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의 사명을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사모님의 허리를 치료해 주시도록).
- 2)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 3)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질병과 각종 위험에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 2)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혔던 선교와 현지 사역들이 다시 재개 되게 하셔서 예정된 자들이 모두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 3) 신학교들이 다시 운영되게 하옵시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 4) 모든 선교사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지역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최 00 선교사님(드니버) 카불에서 있는 마리암과 현지 사역자들의 안전 정 00 선교사님(인도) 영육 간에 강건함과 신학교 졸업식 한 두 목회자 후보생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최지섭선교사님(터키) 한국에서의 사역과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 김 0 선교사님(터키) 영어권/ 한어권의 동역/ 하나님의 공급하심/ 축복과 부흥의 때를 준비하도록 오늘도 전 세계에는 믿음 때문에 핍박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 강지애 선교사님(아르헨티나)-유방암 판정/ 한국에서 치료 예정 ● 최용준 선교사님(과테말라)- 코로나 양성판정 ● 김도현 선교사님(베네주엘라) 가족 코로나 양성 판정 ● 이지향 선교사님(I 국)- 척추협착증으로 인한 통증과 위장 장애 ● 박성직 선교사님(C 국) -심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하시도록 ● 이예신 선교사님(네팔)- 림프암 변이종에서 전이가 되었습니다. 항암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봉년 선교사님(첼라빈스크)-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 되도록 ● 양창모 선교사님(터키)- 파킨슨병 ● 이혜영 선교사님(터키)- 검사 결과 암의 사이즈는 줄었으나 척추 끝 부분에 통증이 심합니다. ● 김지경 선교사님(사할린)-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폐, 심장, 간 면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 최정진 선교사님(엘타이)- 걸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김명자 선교사님(스웨덴)- 체장암 재발 항암치료 다시 시작 ● 김재한 선교사님(파나마)- 수술 후 통증이 없어지도록

1.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공허히 여기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 주님,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며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2.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위기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능력을 주시도록
- 아프간 여성들과 아이들이 보호받고 교육받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도록
- 미군과 NATO 군 등 외국인들과 협력했던 아프간의 안전을 위해
-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안전한 정착지를 주옵소서.

3. COVID-19 과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나라가 락다운되지 않도록

- 대통령, 주지사, 시장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도록
- 교회 예배, 학교 수업, 각종 경제활동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 온 나라가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도록

- 워싱턴 D.C.서 ‘순교자를 위한 거리 행진’ 열려: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는 연대 행진이 25 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올해로 2 회째인 ‘순교자를 위한 거리 행진’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포터마터스(For the Martyrs)’가 주최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참가 인원은 500 명에서 1000 명 사이다. ‘포터마터스’ 창립자인 지아 차콘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통받는 전 세계 3 억 4000 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갖기 위해 매일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 행진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했다. 차콘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통계에서 2020 년에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 살인사건 지난해 30% 급증... 코로나 19 확산, 전국적 폭동 등 영향: 지난해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USA 투데이 등이 28 일 보도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회 상황, 경찰반대운동과 전국적인 폭동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27 일 발표한 2020 년 범죄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사건은 29.4% 증가해 1960 년 범죄통계 작성 이후 한 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 국내 보이스피싱, 최근 3 년간 26 배 급증... “당신도 당할 수 있다”
- 브라질, 90 여년 만에 최악 가뭄... 농산물 생산량 줄어
-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악물 뒷거래 급증”... 학부모들 규제 요구
- 아이티, 대선 내년으로 연기...대통령 의회 공백 계속
- 아프간 경제난... 여교사 등 국제사회에 ‘SOS’
- 아프간 탈레반, 손발 절단 처벌 집행 선언... 기독교인들 위협

하늘을 품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주간도 일천번제 새벽예배 드리면서 새 힘을 얻으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소천하신 분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은 없고 지병으로 인해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제가 잘 알고 동역했던 목사님도 갑자기 뇌출혈로 소천하신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슬플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이기에 확실하게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하실 것을 믿기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기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저에게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준비를 하면서 평상시 자신과 불편했던 관계를 가진 분들에게 전화로 미안함을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했다고 관계회복을 한 내용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감사 예배드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권사님은 마지막 임종예배를 준비하며 가장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신 모습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모든 신체의 장기들을 기부하시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드리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죽음을 앞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상급 쌓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사는 성도입니다.

펜데믹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교회는 축복입니다. 매일 바이블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예배 드리면서 100 일 작정기도하면서 은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를 따라 은혜주시고자 부흥성회를 열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계 부흥성회에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회복과 치유 그리고 새 힘을 받고 하늘을 품고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목사 드림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으시는 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 15:1)”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성경전체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땅을 갈고 거름을 줍니다. 아직 밭에는 그 농부가 키우고자 하는 과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을 파며 땀을 흘리는 농부의 가슴 속에는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꿈이 영롱합니다. 이와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옛새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 영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범죄했기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엡 1:10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농부의 전 관심이 자기가 키워야할 과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우고자 하는 밭에는 다른 과목이나 잡초도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농부의 관심을 뺏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며 다윗도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귀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위하여 쓰임 받은 도구에 불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나 엘리야, 다윗등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네가 모세보다 크냐?”하고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하면서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처럼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마 17:4)”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 선상에 놓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난 구름으로 제자들을 덮으시고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 17:5b)”

하나님의 음성에 땅에 엎드렸던 제자들이 다시 머리를 들었을 때 이미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그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종
김광신 목사 드림.

말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 장 8~9 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 장 28~29 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말세에 경건하게 살려면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 장 8~10 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봉사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 장 27 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참 경건을 이루려면,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지금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일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는 살 길이 막막하니 더욱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아들러 박사에게 심한 우울증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박사는 상담도 해주고 약도 처방해보았지만, 도저히 차도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이 문제인가 걱정이 되어서 조사해보았지만, 가족과 친구들 역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법을 고민하던 아들러 박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는 그 환자가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환자는 아들러 박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다시는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말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입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 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2 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혀는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습니다. 키 조절을 잘 못하면 암초에 부딪히거나 큰 배가 파선합니다. 또한 작은 혀는 불씨와 같아서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쓰면 좋은데, 잘 못쓰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혀를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우리의 입도 경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 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한마디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되지만, 좋지 못한 말을 하면 화가 임하고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화폭에 흰 물감을 칠한 후에 가운데에 까만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까만 점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기 눈에는 하얀 것만 보인다고 하면서 너희는 남의 허물만 보고 들춰내느냐고 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허물이 큰 사람일수록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데에 앞장섭니다.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덕이나 산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쓸어내려서 언덕 아래에 있는 논밭이나 집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항상 보고 삽니다. 저 집에서 찬송소리가 나는지, 다투는 소리가 나는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복음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